

수학의 확률·기댓값·상관관계...
답이 틀린 것은 틀린 사고 때문



틀리지 않는 법
조던 엘렌버그 지음

제목부터 특이하다. '옳은 법'이 아닌 '틀리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 때문이다. 그러나 "수학적 사고의 힘"이라는 부제를 보고 나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대부분의 수학 대중서들은 수학을 단순히 흥미 위주로 다룬다. 그러다보니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답을 간과하기 십상이다. 위스콘신 주립대학 수학 교수로 재직 중인 조던 엘렌버그가 펴낸 '틀리지 않는 법'은 일상에서 왜 수학이 필요한지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를 치밀하고 명료하게 보여준다. 책은 미국 수학회(AMS)가 매년 1권 선정하는 오일러 북 프라이즈 2016년 수상작으로 '수학자들이 인정하는 뛰어난 수학 저술'로 자리매김했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지난 미국 대선을 정확히 예측한 '신호와 소음'의 저자 네이트 실버의 사례를 언급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실버는 누가 이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실버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각각의 주에서 누가 얼마나 앞서는지

퍼센트로 보여주었다. 확률과 기댓값에 기대어 오바마가 승리할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를 알려주고 적중했다. 즉 그는 정치색이나 신념, 감을 토대로 결과를 말하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해 계산된 확률을 제시했다. 그것은 '정답'이 아닌 '틀리기 어려운' 답이었다. 현대인들은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다룬다. 그것을 올바르게 다루지 않으면 틀리기 쉽다. 만약 틀리지 않으려면 올바른 가정을 설정하고, 올바른 데이터 집단을 선정하고, 올바른 알고리즘에 적용해야 한다. 저자가 말하는 수학적 사고란 '인식하고, 검증하고, 더 나은 혹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한 메커니즘을 찾는 것'이다.

이밖에 저자는 상관관계, 성형 회귀, 기댓값,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 등 다양한 개념을 다룬다. 이들 개념들이 오늘날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야구, 농구, 복권, 흡연과 폐암의 관계 등의 사례로 설명한다. 이런 개념들 없이는 스포츠 통계, 뉴스,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책을 보고 나서 드는 생각. 지난 4·13총선에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정지한 수학적 개념에 근거한 수학적 사고를 했다면 그리고 이를 좀 더 세밀하게 적용했다면 '빛나간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다. 답이 틀린 것은 틀린 사고를 했다는 방증이다.

<열린책들·2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혼란과 매혹의 '사랑의 역사' 조명

사랑의 탄생
사이먼 메이 지음



사랑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 가장 보편적이며 가치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다. 예술가들에게는 영감을 불어넣는 소재로, 종교인들에게는 실천해야 할 행위로, 일반인들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힘으로 생각됐다.

사실, 동서고금을 통해 사랑만큼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감정도 없다. 그러나 정작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백인백색의 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누군가 "나는 널 사랑해"라고 말해도, 상대는 "너는 널 사랑하지 않아"라고 말할 수도 있다. 사랑을 고백한 사람도, 고백을 받는 이도 동일하게 사랑에 대해 말하지만, 그러나 서로가 생각하는 사랑은 같지 않다.

남편 사이에서조차도 그럴 타인대 인류 역사를 두고 본다면 얼마나 다양한 정의가 있을까. 이처럼 사랑은 늘 인간사에서 중요한 관심사였지만 한 가지로

정의하기 어렵다.

시대에 따라 변모하며 늘 새롭게 재탄생해 사랑의 역사를 조명할 책이 나왔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객원 교수인 사이먼 메이 지음 '사랑의 탄생'은 혼란과 매혹의 역사 그 자체인 사랑을 탐색한다.

저자는 서양인의 사랑의 뿌리를 구약 성경과 그리스 철학에서 찾는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다른 계율도 말한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여기서 신이 자신의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었기에 인간은 신을 닮으려 노력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구약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은 고스란히 인간 사랑의 척도가 된다. 이는 사랑의 목표가 곧잘 신격화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플라톤적 사랑'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육체적 욕구에서 시작되는 사랑이 영적인 이해로, 유한에서 무한으로, 조건에서 절대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랑을 절대적인 미의 실재보다 개인의 변형을 위한 사랑의 간 의 대상으로 보았다. 로마의 실용주의자 오비디우스는 양기적인 입장을 취했다. 관능적 쾌락을 즐기되 지나치게 빠져서는 안 되고, 마찬가지로 사랑의 더 높은 이상에 현혹되지도 말라고 충고했다.

중세 이후에 등장한 스피노자는 신과



사이먼 메이 지음 '사랑의 탄생'은 혼란과 매혹의 역사 그 자체인 사랑을 다각도로 탐색한다.

자연의 구분을 거부했다. 닿을 수 없는 높은 하늘로 치솟은 사랑을 땅으로 끌어내린 것이다. 이후 루소, 노발리스, 쇼펜하우어, 니체로 이어지는 사랑의 역사는 대체로 모순으로 인간을 지배했다. 마침내 프로이트와 프루스트에 이르러서는 '신은 사랑이다'라는 명제가 '사랑은 신이다'는 명제로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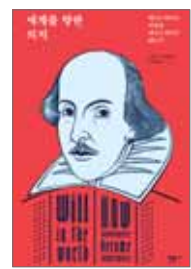
앞서 보듯 사랑에 대한 인간의 생각은 늘 변해왔다. 저자는 사랑에 대한 욕구는 이 세상에서 고향에 온 듯한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라고 본다. 지금 여기에 서 삶을 뿌리내리려는 욕망을 '존재론적 정착'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신은 사랑'이든 '사랑은 신'이든 이분법적 구분은 중요하지 않

다. 사랑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해 노력하고, 그를 '그의 내면 그대로' 이해했다고 단정짓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하나 슬픈이나 역사에 의해 왜곡된 시각에 가두지 않는 것도 요구된다.

"그 어떤 고귀하고 필수적이고 혁명적인 이상도, 서양의 정신이 여전히 갈구하는 삶의 목적과 의미의 궁극적 근거가 되어줄 수는 없다. 사회가 더 개인을 의화할수록 사랑이 소속감과 개인의 궁극적 원천으로서의 계속 격상될 것을 우리는 더 기대할 수 있다. 서양 우상들의 황무지에서, 오로지 사랑만이 무사히 살아남는다." <문학동네·1만95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셰익스피어는 어떻게 위대한 작가가 되었나



세계를 향한 의지
스티븐 그린블랫 지음

셰익스피어는 어떻게 세계적인 셰익스피어가 되었는가? 시공간을 초월해 어떻게 위대한 작가로 발돋움했을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로 꼽히는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비밀스럽고도 놀라운 일생을 다룬 책이 나왔다. 하버드 대학교 인문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스티븐 그린블랫이 펴낸 '세계를 향한 의지'는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오늘의 대작가로 자리매김 되었는지 탐색한다.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의 한 젊은이가 있다. 독자적인 재산도 없고, 강력한 가문 출신의 인맥도 없으며, 대학 교육도 받지 못한 이 젊은이가 1580년 후반에 런던으로 상경

한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자신의 시대뿐 아니라, 인류 역사상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가장 위대한 극작가가 된다."

저자는 지금까지 신화적 대상으로 온갖 의혹과 논란 속에 놓여 있던, 작가 셰익스피어를 자신의 비평적 렌즈로 조명한다. 문학과 역사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거대한 사회적 관계망에 근거해 들여다본다.

이를 위해 작품은 물론 셰익스피어가 작성했을 사적인 문서와 다양한 공문서까지 검토해 '인간 셰익스피어'의 실체를 밝힌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셰익스피어가 400여 년 동안 사랑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셰익스피어가 인간만이 해낼 수 있는 인본주의적 성취를 가장 완벽하게 그려냈기 때문이다. 인본주의가 꿈은 인간적 의지의 현현이자, 그것이 일궈낸 승리의 징표라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문장과 작품에 깃든 높은 주제의식도 포함된다.

<민음사·2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저마다 빛깔을 드러내는 67편의 사랑노래



죽든
김선우 지음

시인이자 소설가인 김선우가 다섯 번째 시집 '죽든'을 펴냈다. 지금까지 소설과 시에서 독특한 감수성과 통찰력으로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펼쳐온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세상 낯날의 존재들에 애정 어린 시선을 드러낸다. 특히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강인함은 여러면에서도 독특한 빛을 발한다.

이번 작품집에서도 시인은 예외없이 사랑에 초점을 맞춘다. 기존의 시들이 관능

과 혁명을 넘나드는 사랑에 초점을 맞췄던 데 반해 이번에는 '이별'과 결함된 애도의 형태에 주목을 한다. 역설적이지 모르지만 사랑은 환희나 기쁨보다 이별이나 아픔의 감정에 더 익숙한 측면이 있다.

한마디로 이번 시집은 슬픔에 빠지지 않는 진혼가이자 끝을 두려워하는 사랑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다. 격분하지 않으면서도 잔잔하게 끓어오르는 투쟁가로 다가온다. 시집 제목 '죽든'은 고요한 밤 감정을 울리는 음악인 이상곡(夜想曲)의 의미로 수렴된다. 67편의 시들은 서로 공명하면서도 저마다의 빛깔을 드러내는 사랑의 노래다. 언어 이전의 근원적인 소리들, 다시 말해 비언어적 리듬의 결집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과지성사·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단짝' 윤동주-송몽규 어린시절 소설로 되살려



동주와 몽규
유광남 지음

일제 치하 어두운 역사, 절망적인 시대에서 빛나는 시를 남겼던 시인 윤동주. 차분한 성격의 윤동주와 달리 활동적이고 적극적이었던 그의 단짝 독립운동가 송몽규. 두 사람의 어린 시절을 소설로 되살린 '동주와 몽규'가 출간됐다.

소설가와 문화 창작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 유광남이 이번에는 윤동주와 송몽규의 어린 시절을 상상력으로 재구성해 둘을 되살렸다.

윤동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그의 생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 윤동주의 생애보다 더욱 베일에 가려졌던, 사람들이 몰랐던 인물이 바로 송몽규다. 둘은 동갑내기 고종사촌으로, 오 개월 차이로 태어나 한집에서 자랐으며 함께 학교를 다녔다.

책은 두 사람이 실제 다녔던 은진중학교와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한다. 함께 장난치고 문학에 대한 애정이 많은 평범한 소년이었다면 그들은 독립투사들이 일본에 뺨은 금과 사건에 휘말리면서 힘없는 나라의 참혹한 현실을 절감하고 독립투사들의 싸움에 함께한다.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 복원부 세트.

<스타북스·1만2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가2층
대표전화 : 062) 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체 010-3600-9955

대신프리모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밝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외벽 패넌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